

이성하 2000. 의미적 구체성과 문법화: 범언어적 사례 연구.
한말연구 7: 223-248.

의미적 구체성과 문법화: 범언어적 사례 연구*

이 성 하

□ 차 례

1. 머리말
 - 1.1. 문법화 어원어의 의미적 층위
 - 1.2. 의미적 특수성
2. 의미적 구체성과 문법화의 범언어적 비교
 - 2.1. 영어
 - 2.2. 프랑스어
 - 2.3. 에스파냐어
 - 2.4. 태국어
 - 2.5. 일본어
 - 2.6. 한국어
3. 문법화와 의미: 남겨진 과제
 - 3.1. 의미층위의 문제
 - 3.2. 범주화와 문화적 영향의 문제
4. 맺음말

1. 머리말

그동안 문법화론에서는 문법화에 참여하는 어원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 점에 대한 연구는 주

* 이 논문은 담화인지언어학회 2000 봄 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로 담화, 통사, 의미의 각 층위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그 중 의미적 측면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어원어들은 의미상 구체성이 적어야 한다는, 즉 의미적 일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Heine *et al.* 1991; Hopper & Traugott, 1993; Bybee *et al.* 1994. 등) 그 이상의 자세한 연구는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글은 의미적 구체성의 정도 차이가 문법화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조를 보이는지를 의미적 층위와 의미요소의 관점에서 범언어적으로 비교해 보고, 이 어원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법화상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혀 보려는 시도이다.

1.1. 문법화 어원어의 의미적 층위

그동안의 문법화 연구에서는 문법화되는 어원어의 의미적 층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Traugott(1982:246)에서는 일반적인 대화상황에서 상징적이며 직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Van Oosten(1986)도 *sit, stand, lie* 등과 같이 인간의 신체적인 상태에서 기본적인 층위의 단어들인 *가장* 문법화되기 쉽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Sweetser(1988:402)에서도 *have, be, take, make, come, go* 등은 모두 기본 층위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며 이보다 더 세분화된, 즉 하위층위의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은 문법화될 가능성이 적다고 밝힌 바 있다. Heine *et al.*(1991:33)에서도 Rosch(1973, 1978)의 기본층위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이 가장 유용하며 따라서 가장 높은 빈도로 쓰이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바로 이 층위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문법소의 어원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였다. 사용빈도가 문법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Bybee *et al.*(1994), Hopper & Traugott(1993)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Heine *et al.*(1991:33~35)에서는 상위범주어들도 문법화에서

자주 어원어가 되며, 모든 기본층위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이 어원어가 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문법화에 참여하는 어원어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요약하였으나, 이 특징은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1.2. 의미적 구체성

의미적 구체성 또는 의미적 일반성은 그동안 자주 사용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사용에 많은 혼란이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의미추가(semanticization)는 의미의 내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미소실(desemanticization) 또는 의미일반화(semantic generalization)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미추가 현상은 은유에 의해 자주 발생하는데 은유에 의해 생겨나는 의미추가 현상은 의미소실 현상과 더불어 의미변화 현상이라는 동전의 양면에 불과한 것이다(이성하, 1996). 왜냐하면, 은유에 의한 의미추가는 의미내용(meaning)은 증가하지만 의미요소(meaning component)는 감소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예를 들어 ‘가다’라는 동사가 물리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단계에서는 [어느 공간에서 위치를 이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용의 영역이 시간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시간적 이동을 나타내는 의미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의미는 [① 어느 공간에서 위치를 이동하다. ② 어느 시간상에서 위치를 이동하다]라는 의미내용을 가지게 되므로 일견 의미추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확장된 의미에서는 그 장소적, 시간적 영역이라는 의미요소가 삭제되어 단순히 [위치를 이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면 이것은 의미소실, 즉 의미일반화가 생겨난 셈인 것이다.¹⁾

따라서 이 논문에서 사용된 의미적 구체성이란 개념은 그 단어가 사용되는 영역이 특정적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1) 이러한 이유로 이성하(1996)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미추가는 화용적 추론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일반의미론에서 해당범주의 층위가 매우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의미요소가 상실되면서 상의어(hypernym)의 의미로 변형된다. 예를 들어 [perambulate ‘슬슬 걷다’ > walk ‘걷다’ > move ‘이동하다’]와 같은 연속선에서 의미적 구체성의 크기는 [perambulate > walk > move]의 순서가 되며 *perambulate*에서 [manner]라는 요소가 삭제되어 *walk*의 의미가 되고, *walk*에서는 [mode]라는 요소가 삭제되어 *move*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미적 구체성과 문법화의 범언어적 비교

여기서는 범언어적으로 여러 가지 단어들이 그 의미적 구체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실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영어

범언어적으로 가장 흔히 문법화하는 단어들 중에는 이동동사들이 있다. 이 점은 영어에서도 물론 예외가 아니어서 영어의 *go*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소가 되어 있다. 이를 그 하의어(hyponym)와 상의어와 각각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go, walk, move

ㄱ. I am going to come.

ㄴ. *I am {walking, dragging, trotting...} to come.

ㄷ. *I am {moving, relocating...} to come.

위의 예에서 보면 (ㄱ)에서와 같이 *go*는 미래성(futurity)을 표시하는 표지로 문법화하였으나, 그 하의어인 (ㄴ)의 경우에는 유사한 구문에서 문법성 표지로 발달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상의어인

(ㄷ)의 경우에도 문법화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의어 부류인 *walk, drag, trot* 등은 *go*에 비해 [+mode], [+manner] 등의 의미요소가 더 추가되어 있어 의미적 구체성이 더 큰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go*보다 더 일반성이 큰 *move*나 *relocate*도 문법화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류에 대해서는 후에 3.1.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배치동사인 *keep, put, store* 등의 문법화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keep, put, store*

ㄱ. He keeps on crying.

ㄴ. *He {puts, store} on crying.

영어에서 *keep on*은 이른바 지속상(continuative aspect)을 나타내어 사건의 지속 또는 반복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의미상 유사한 *put* 또는 *store*는 이러한 상표지로 발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이 동의어 사이의 의미요소상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keep*은 비종결성 동사(atelic verb)로서 배치와 관련된 [+location]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데 반해 *put*은 종결성 동사(telic verb)이며 *keep*에 의해 표시된 상태로의 진입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Genetti, 1986: 59).

2.2. 프랑스어

프랑스어에서 문법화 현상을 보이는 *aller* 동사의 경우를 간략히 살펴보자. 동사 *aller*는 현대 프랑스어에서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문법표지로 발달되어 있다. 원래 이 동사는 라틴어의 *ambulare*에서 출발한 것인데 라틴어에서 *ambulare*는 ‘걸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였다. 이것이 로만스어에서는 에스파냐어의 *ambulante* ‘이동하는’, 이탈리아의

ambulanza, 에스파냐어의 *ambulancia* ‘앰블런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의 뜻으로 의미가 일반화되어 [+mode]의 의미요소가 상실되었다.

비교적 그 의미가 구체성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던 Latin어 시기에는 *ambular*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그 의미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변화한 다음 프랑스어에서는 문법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 프랑스어에서 라틴어의 *ambulare*의 의미에 해당하는 *marcher*는 문법화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영어의 예에서와 유사하게 *aller*의 상의어인 *mouvoir* ‘움직이다’는 문법화하지 않았다.

(3) *aller*, *marcher*, *mouvoir*

- ㄱ. *Nous allons chanter.* ‘우리는 노래할 것이다’
- ㄴ. **Nous marchons chanter.*
- ㄷ. **Nous mouvons chanter.*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ㄱ)의 *aller*는 미래시제표지로 발달하였으나 *marcher*는 문법화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marcher*가 ‘걸다’, ‘행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aller* ‘가다’보다 [+mode], [+manner]의 의미요소가 더 있기 때문이다. *aller*보다 의미가 더 일반적인 *mouvoir* ‘움직이다’에 대해서는 3.1.에서 더 언급하기로 한다.

2.3. 에스파냐어

에스파냐어에서도 여러 가지 시상태와 관련된 문법성을 표시하는 문법소들이 여러 동사에서 발달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종결성과 시발성과 관련된 문법소들의 발달을 의미요소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에스파냐어의 *acabar*와 *terminar*는 둘 다 ‘끝내다’, ‘완성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완결상(completive aspect)을 나타내는 문법표지

로서의 사용에 있어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단어가 차이를 보인다.

(4) acabar, terminar

ㄱ. No acabo de entenderlo. ‘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ㄴ. *No termino de entenderlo.²⁾

에스파냐어에서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너무나도 유사해서 이처럼 문법화에 있어 의미차이를 보이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acabar*는 *terminar*와 달리 ‘끝나다’, ‘완성하다’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 이외에도 ‘죽다’, ‘모두 소비하다’, ‘시들다’와 같은 의미로도 쓰여 그 종결성의 의미가 적용되는 폭이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소한 차이의 의미일반화 정도가 문법화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종결성과 관련하여 더 살펴볼 것은 종결성이 어휘화된 가장 극단적인 예는 순간성(semelfactive)을 나타내는 ‘때리다’, ‘차다’, ‘두드리다’ 등의 동사들이다. 이 동사들은 모두 행위의 시작점과 끝점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행위가 종결로 이어지는 지속폭이 매우 좁아 단일행위로서는 진행형으로 만들 수 없고, 반복행위로서만 진행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이다. 이 동사들은 인식적으로 종결성만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표적인 순간성 동사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법성 표지로 발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에스파냐어에서는 일반적으로 *de*에 의한 동사 접속이 용인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Terminó de escribir la carta* ‘그는 편지를 다 썼다’와 같은 문장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 때의 *terminar de*는 완결성이라는 문법성 표지로서보다는 문자적인 의미에 기초한 기본 구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점은 *entender* ‘이해하다’와 같은 동사가 이런 구문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 (5) golpear/pegar
 - ㄱ. *Golpear a/de ...
 - ㄴ. *Pegar a/de ...

- (6) guiñar/parpadear
 - ㄱ. *Guiñar a/de ...
 - ㄴ. *Parpadear a/de ...

위의 예에서 보면 순간성 동사들인 *golpear/pegar* ‘치다, 때리다’, *guiñar/parpadear* ‘눈을 깜박이다’와 같은 동사들은 그 어느 것도 문법성을 나타내는 구문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순간성 동사들은 종결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분포상으로도 매우 제약이 많아 빈도수가 매우 낮다.

에스파냐어에서 기동상(inchoative)이나 시발상(inceptive)은 *comenzar* ‘시작하다’, *empezar* ‘시작하다’, *poner* ‘놓다’로부터 발달된 구문을 사용한다. 이러한 예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 (7) comenzar/empezar/poner
 - ㄱ. Comienzo a comer el pan. ‘나는 빵을 먹기 시작한다’
 - ㄴ. Empiezo a comer el pan.
 - ㄷ. Me pongo a comer el pan.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menzar*, *empezar*, *poner*는 모두 기동상이나 시발상을 나타내는 구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comenzar*와 *empezar*가 거의 동의어이며 의미요소상의 복잡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예에서 흥미로운 것은 *poner*동사의 사용인데 *poner*는 이른바 배치동사로서 어떤 사물을 이동시켜 새로운 장소에 위치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동사이다. 이러한 배치동사는 범언어적으로 완료를 나타내는 문법구문으로 문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배치동사가 오히려

려 의미상으로 반의에 가까운 기동상/시발상을 나타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례적인 일 뒤에는 이 동사가 문법화하게 된 구문상의 특징이 있다. 즉 *poner*는 재귀형 또는 중간태의 표지인 *se*가 부가되어 있는 *ponerse*의 구문을 형성한 다음 시발상/기동상의 표지로 발달한 것이다.³⁾ 재귀형과 중간태를 나타내는 *se*는 공통적으로 동사에 의해 표시되는 의미상의 행동이 그 행동 종결점이 행위자 자신에게 귀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Kemmer, 1993). 이 *ponerse*에서 *se*를 재귀형으로 보면 ‘자신을 …에 놓다’가 되어 자신이 어떤 동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의 ‘…에 착수(着手)하다’, ‘…에 손을 대다’ 등과 같이 신체의 일부와 행위와의 접촉을 통해 환유적으로 기동, 시발을 나타내는 것과 인식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4. 태국어

태국어는 고립어로서 어형 변화가 따로 없이 어순과 문맥에 의해 범주상 특징을 구별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제선, 2000: 7~8). 따라서 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사로 쓰이는 어휘항목들이 전치사와 같이 문법성을 나타내는 이른바 이차범주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예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동사들이 문법화하는 현상을 의미요소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8) hai (이제선, 2000:66~67)⁴⁾

-
- 3) 본문의 *me pongo*는 *ponerse*의 1인칭 단수 현재에 따른 굴절형이다.
 4) 여기에서 인용된 태국어의 예문들은 대부분 이제선(2000)에서 인용한 것이다. 원래의 인용문은 태국어 문자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모두 로마자로 바꾸었으며 원문과는 달리 띄어쓰기를 하였다. 한국어 번역문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또한 원문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용어들도 원문과는 다른 일반적인 언어학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문과는 다른 언어학적 해석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 ㄱ. Kru hai kong kwan kenak rian.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선물을 준다’
- ㄴ. Munliti thongzom achip hai kasetrakan.
‘그 재단은 농민에게/을 위해 직업을 장려한다’
- ㄷ. Kunmes kanom ma hai dekdekkin.
‘어머니는 과자를 만들어 아이들이 먹게 한다’

위의 예에서 보면 동사 *hai* ‘주다’는 (ㄱ)에서는 본동사로, (ㄴ)에서는 수혜격(benefactive) 표지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으로는 ‘장려해 주다’와 같이 ‘…아/어 주다’에 해당되는데 그 어원도 한국어와 동일함으로서 인식적인 공통점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수혜격표지는 (ㄷ)에서의 예에서와 같이 수혜자가 드러나는 사역동사의 의미인 ‘…하게 하다’로도 발전되어 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태국어에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다음과 같이 몇 개가 더 있다(차상호 개인 자문; 최창성 개인 자문).

- (9) ㄱ. mob/mobhai/mobmai: ‘배정하다’, ‘위임하다’, ‘맡기다’, ‘이전하다’, ‘배달하다’ (‘학위/메달 등을) 수여하다’
- ㄴ. prarachataan: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 드리다’
- ㄷ. borichaak: ‘(혈액/자선금 등을) 기부하다’

위에 열거된 *mob*, *mobhai*, *mobmai*, *prarachataan*, *borichaak* 등은 *hai*와는 달리 수혜격표지나 수혜적 사역동사 구문으로 발전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hai*와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ㄱ)의 *mob*, *mobhai*, *mobmai* 등은, 단순히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hai*보다 그 의미적으로 내용이 더 복잡하여 [+legality] [+commitment] 등과 같이 좀 더 전문적인 수여행위를 나타내는 의미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mob*보다 *hai*가 의미적으로 더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은 *mob*라는 기본적인 단어에 *hai*가 다시 붙어 쓸 수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에서도

‘주다’와 ‘수여하다’ 사이에서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의미적으로 일반적인 단어인 ‘주다’에는 ‘수여하다’가 붙어 ‘주어 수여하다’라고 할 수 없는데 반해, 의미적으로 구체적인 ‘수여하다’에는 의미적으로 일반적인 ‘주다’가 붙어 ‘수여해 주다’와 같이 수혜격이 표시된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mobhai*와 *mobmai*의 경우에는 음운적으로도 *hai*보다 더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문법화되는 단어들은 음운적 크기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는 지적과도 상관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eillet, 1912; Zipf, 1935; Lehmann, 1982; Bybee *et al.* 1994 *inter alia*). 예 (ㄴ)에서는 *prarachataan*이 하급자로부터 상급자에게로의 이전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 의미요소 중에 [+deferential]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국어에서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ttam*은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동사의 의미 이외에도 전치사로 발전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선, 2000:63).

(10) *ttam*

- ㄱ. Naksup *ttam* purai. ‘탐정가가 범죄자를 쫓는다’
- ㄴ. Rangkai kongti raruktang rian rai *ttam* tanon.
‘기념품 판매점이 길가를 따라 세워져 있다’
- ㄷ. Rataban kep pasi *ttam* kot mai.
‘정부는 법에 의해 세금을 걷는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ttam*은 (ㄱ)에서는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본동사로 쓰였다. 그러나 (ㄴ)과 (ㄷ)에서는 방향이나 준거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발전하여 쓰였다.

태국어에서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의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1) ㄱ. *titttam*: ‘달라붙다’, ‘결속하다’, ‘붙다’
- ㄴ. *laittam*: ‘따라잡다’, ‘쫓아가 붙잡다’

위에 나열된 두 단어 *tittam*, *laittam*은 모두 ‘따르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동사로 쓰이고 있으나 이들 모두 다른 기능을 가진 문법소로서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로는 우선 의미적으로 보아 *tittam*에는 결과적인 부착, 즉 [+attainment]라는 의미요소가 첨가되어 있고, *laittam*에는 추적행위와 그 결과적인 성취, 즉 [+proximation], [+attainment]의 의미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두 단어 모두가 음운적으로 *ttam*보다는 복잡하여 문법화하기에는 *ttam*보다 비교적인 열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국어에서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로는 *chaak*이 있다. 이 동사는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동사로서의 의미로서뿐 아니라 출발점이나 재료를 나타내는 전치사의 용법으로도 사용된다.

(12) *chaak* (이제선, 2000:59~60)

- ㄱ. Ruknok *chaakrang*. ‘새가 둥지를 떠난다’
- ㄴ. Kaonang tam ngang *chaak chaotongkam*.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한다’
- ㄷ. Krapao tam*chaak nangwao*.
‘가방을 소가죽으로 만들었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aak*은 (ㄱ)에서는 ‘떠나다’라는 의미의 본동사로 쓰였으나 (ㄴ)에서는 ‘...로 부터’의 의미를 가지는 출발점을 표시하는 전치사로 사용되었으며 (ㄷ)에서는 ‘...을 가지고, ...으로’의 뜻을 가진 재료를 표시하는 전치사로 사용되었다.

‘떠나다’의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동사는 *chaakpai*이다. 이 동사는 그 의미가 *chaak*과 너무 유사하여 의미상의 차이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chaak*이 문법화한 것과 *chaakpai*가 문법화하지 못한 이유를 그 의미면에서 찾기 어려운 것 같다. 이와 같은 문법화상의 불균형은 전적으로 음운론적 이유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음운적으로 복잡한 어휘는 상대적으로 문법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국어의 배치동사의 문법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예는 동사 *yang*과 이로부터 발달한 문법소로서의 의미기능을 보여 준다.

(13) *yang* (이제선, 2000:66~67)

ㄱ. Prarachadan ri *yang* prayot suk ke ana pracharat.

‘왕의 생각은 백성들의 행복을 유지시켰다’

ㄴ. Gao *yang* mai ke tan rai. ‘그는 아직 별로 늙지 않았다’

ㄷ. Chanduntang ok pai *yang* muong pusan.

‘나는 부산으로 떠난다’

위의 예에서 보면 ‘유지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 *yang*이 (ㄱ)에서는 본동사로 사용되었고, (ㄴ)에서는 일종의 부정극어 (NPI: negative polarity item)로 사용되었으며, (ㄷ)에서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향격 (allative) 표시 전치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태국어에서 ‘유지하다’의 의미를 가진 유의어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khong*과 *raksa* 두 개가 더 있다.

(14) ㄱ. *khong*: ‘견디다’, ‘지탱하다’

ㄴ. *raksa*: ‘유지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ㄱ)의 *khong*은 동사로서는 *yang*과 비교해 볼 때 [+effort]의 의미요소를 더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ㄴ)의 *raksa*는 동일한 유지행위 중에서도 특히 교정적 기능이 있는 유지행위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 의미요소 안에 [+remedial]이 있음을 알 수 있

5) *khong*은 부사로 사용될 때에는 ‘아마도’, ‘거의 확실히’ 등과 같이 개연성을 나타내는 서법부사로도 쓰인다. Heine *et al.*(1991)의 입장에서는 부사가 어휘적 범주와 문법적 범주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동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발전한 것도 문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부분도 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 이들 두 동사는 *yang*과 달리 문법표지로 문법화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있는 의미요소에 의해 의미적 구체성이 높은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 일본어

여기서는 일본어의 배치동사, 제거동사, 존재동사의 세 부류를 문법화 현상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동사 *oku*는 ‘놓다’의 뜻을 가진 전형적인 배치동사이다. 이 동사는 다음과 같이 본동사로서의 용법과 문법소로서의 용법을 가지고 있다.

(15) *oku* (Ono, 1992; 문명재, 개인자문.; Abe, 개인자문)

ㄱ. *Tsukue-no ue-ni hon-o oi-ta.*

‘나는 책을 책상위에 놓는다’

ㄴ. *Sono hon-o dashi-te oi-ta.*

‘나는 그 책을 (나중에 쓰려고) 꺼내 놓았다’

ㄷ. *Kare-ni kimi-no koto-wa hanashi-te oi-ta.*

‘내가 그에게 너에 대해서 잘 말해 두었다’

위의 예에서 보면 동사 *oku*는 (ㄱ)에서는 본동사의 의미로 어떤 물체를 어느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뜻하는 전형적인 배치동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ㄴ)과 (ㄷ)에서는 *oku*가 미래의 효용성을 위한 동작임을 표시하는 목적성(purposive)의 표지인 조동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oku*의 유의어로는 다음과 같은 동사들이 있다.

(16) *yasunzuru/hozonsuru/tamotsu/mamoru* (이충균, 개인자문)

ㄱ. *yasunzuru*: ‘지키다’, ‘편안하게 하다’, ‘안심시키다’

ㄴ. *hozonsuru*: ‘보존하다’

ㄷ. *tamotsu*: ‘지키다’, ‘소유하다’

ㄹ. *mamoru*: ‘지키다’, ‘방어하다’

위에 제시한 여러 가지 *oku*의 유의어들은 ‘지키다’, ‘두다’와 같은 배치 및 상태 유지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일종의 유의어에 속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의미요소들을 갖고 있다. 즉, *yasunzuru*의 경우에는 평안함과 관련되어 있고, *hozonsuru*의 경우에는 보존이나 유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tamotsu*는 소유의 의미가 강하고, *mamoru*는 소유상태로부터의 박탈과 관련된 방어에 그 의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의미 특징에 의해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 *oku*와는 그 의미적 구체성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가 문법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ㄴ)의 *hozonsuru*의 경우에는 한자어 ‘보존(保存)’에서 유래한 한자식 동사인 데 이 점도 *hozonsuru*의 문법화를 억제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범언어적으로 볼 때 다른 언어에서 차용된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장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고유어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인 사용빈도수가 낮고 따라서 문법화를 겪는 개연성이 낮기 때문이다(이성하, 1996:76).

일본어의 제거동사는 대표적으로 *shimau* ‘치우다’를 들 수 있다. 이 동사의 용법은 다음 예와 같다.

(17) *shimau* (Ono, 1992; Ono & Suzuki, 1992; 문명재, 개인자문)

ㄱ. *Monooki-ni yoma-nai hon-o shimat-ta.*

‘나는 읽지 않는 책들을 창고로 치운다’

ㄴ. *Sono hon-o yon-de shimat-ta.*

‘나는 그 책을 읽어 버렸다 (다 읽었다)’

ㄷ. *Sono mondai-wa toi-te shimat-ta.*

‘나는 그 문제를 다 풀었다 (그래서 기쁘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끝내다’, ‘치우다’, ‘치워두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shimau*는 (ㄱ)에서는 본동사로서의 원래 의미로 쓰였지만 (ㄴ)과 (ㄷ)에서는 완료상(perfective)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shimau*와 유의어로는 *suteru* ‘버리다’, *katazakeru* ‘치우다’ 등이 있

는데 이들 두 동사는 문법적인 용법으로는 문법화하지 못하였다. 이 중 *katazukeru*는 *shimau*보다 음운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음운적인 복잡성이 문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suteru*의 경우에는 의미상의 구체성 면으로나 음운상의 복잡성 면으로나 *shimau*와 상대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suteru*가 문법화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는 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본어의 존재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본어에는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는 *aru*와 *iru*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18) *aru/iru* (문명재, 개인자문; Abe, 개인자문)

ㄱ. *Sokoni ki-ga ue-te aru.* ‘저기에 나무가 심겨 있다’

ㄴ. *Sokoni domotachi-ga sua-te iru.*

‘저기 내 친구가 앉아 있다’

ㄷ. *Gabin-ga ware-te iru.* ‘꽃병이 깨져있다 (깨졌다)’

위의 예에서 보면 *aru*와 *iru*는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존재동사로서 *aru*는 사물의 경우에, *iru*는 사람의 경우에 사용된다. 이들은 둘 다 보조용언으로서의 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동의 의미가 있을 때에는 (ㄱ)에서와 같이 *aru* 동사가 *-te aru*의 용법으로 사용된다. 사람의 경우에는 상태지속을 나타낼 때 (ㄴ)에서와 같이 *iru*가 *-te iru*의 용법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ㄷ)에서처럼 상태변화상이나 상태지속상(change-of-state aspect; resultative aspect)을 나타낼 때에는 비록 사물인 경우에도 *iru*를 쓴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일본어의 변화 방향은 수동태인 경우에도 점점 *iru* 구문이 선호되어 가고 있다. 즉 *aru*와 *iru* 사이에서는 그 문법적 기능으로의 확장이 *iru*가 더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미적인 요소상 두 개의 어휘소가 거의 동일하고 음운적 복잡성에서도 전혀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문법화상으로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아직까지 *aru*와 *iru*

사이의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은 밝혀진 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은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이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된 것을 무표적으로 생각하는 강한 경향이 있는데(Heine, 1997; Svorou, 1994 *inter alia*) 이 경우에도 이러한 인식적 편견이 *iru*의 무표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는 *aru*와 *iru* 이외에도 *iratsharu*와 *oru*가 있다. 이들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19) *iratsharu/oru* (Abe, 개인 자문; 문명재, 개인 자문)

ㄱ. *Sokoni otoosan-ga sua-te iratsharu.*

‘아버지께서 저기 앉아 계신다’

ㄴ. *Watashi-ga kokoni sua-te orimas.*

‘저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보면 (ㄱ)의 *iratsharu*는 주어가 존대될 때에 사용하는 존재동사로서 [+subject-honorific]이라는 의미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주어가 [+honorific]의 자질을 갖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ㄴ)의 *oru*는 화자를 낮춤으로서 청자를 높이는 겸양을 표시하는 존재동사로서 [+subject-modesty]의 의미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주어가 청자에 대하여 스스로 낮추는 자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대화상의 대우법이 완전하게 어휘 안에 굳어지는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드문 현상이다 (cf. Bybee, 1985). 그러나 이처럼 특이한 의미요소의 관습화는 단어 차원의 문제, 즉 어휘화의 예이어서 문법화의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문법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 두 동사는 특별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소로 발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iru*가 갖고 있는 보조동사로서의 문법적 역할에 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같은 존재동사이면서도 이처럼 문법화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이 *iru*와는 달리 특별한 의미요소

가 내재되어 있어서 이 그 쓰임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2.6. 한국어⁶⁾

한국어에서는 존재 동사 ‘있다’와 ‘계시다’의 문법화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고자 한다.

(20) ‘있다’

- ㄱ. 새가 죽어 있다.
- ㄴ. 새가 죽었다.
- ㄷ. 집을 짓고 있다.
- ㄹ. 그는 요즘 약을 먹고 있다.
- ㅁ. 나는 곧 미국에 가겠다.
- ㅂ.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21) ‘계시다’

- ㄱ. 아버지께서 쓰러져 계신다.
- ㄴ. 아버지께서 집을 짓고 계신다.
- ㄷ. 아버지께서 요즘 약을 먹고 계신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있다’는 ‘-어 있-’과 여기에서 발달한 ‘-었-’ 형태로 (20ㄱ)에서처럼 상태지속상의 표지로도 사용되며 (20ㄴ)에서처럼 과거시제 또는 완료상 표지로 사용된다. (20ㄷ)에서는 ‘-고 있-’이 전형적인 진행상 표지로 사용되었으며 (20ㄹ)에서는 미완료상 표지로 사용되었다. (20ㅁ)은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겠-’의 예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게 하여 있-’에서 발달한 것이다 (허용, 1982ㄱ, 1982ㄴ; 김차균, 1990). (20ㅂ)의 예는 장소를 나타내는 ‘-서’의 예인데 이것 또한 역사적으로 ‘이시다’와 ‘-어’의 결합으로부터 발달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계시다’의 경우에는 주로 ‘있다’로부터 문법화된 형태

6) 한국어의 예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성하(1996) 참조.

들에 기생적인 상태로 ‘있다’가 형태상으로 투명한 경우에만 ‘계시다’의 형태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있다’형의 문법화에 준하는 발달을 거쳤지만 ‘-었-’이나, ‘-겠-’, ‘-서’ 등과 같이 형태적 투명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문법표지의 기능을 얻지 못하였다.⁷⁾

이와 같이 ‘있다’와 ‘계시다’ 경우의 문법화상의 차이점은 ‘계시다’가 ‘있다’와 달리 [+honorific]의 의미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어의 *iratsharu*와 *oru*의 경우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한국어의 ‘있다’와 ‘계시다’의 사용빈도수는 차이가 매우 크다.⁸⁾

3. 문법화와 의미: 남겨진 과제

지금까지 영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태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중심으로 단어의 의미와 문법화와의 상관성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의미의 변수로서는 일부 어휘에 대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당어휘가 의미위계상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그 상의어와 하의어와의 비교를 하였으며,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의미위계 층위에 속하는 동의어 또는 유의어들을 의미요소상의 작은 차이에 따라 비교하였다. 의미의 구체성과 문법화와의 상관성에 대한 기본적인 가설은 의미가 구체성이 적을수록, 즉 의미가 일반성이 클수록 문법화가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대개의 경우 잘 적용되는 것 같으나 몇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남기고 있다.

3.1. 의미 층위의 문제

7) ‘계시다’는 현대 한국어의 존칭 주어표지인 ‘-께서’가 발달하게 되는 어원이 되었다. 이태영(1993[1988])에서는 이 표지가 ‘계시다’와 장소표지 ‘띄셔’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발달하였다고 하였다.

8) 이 두 동사의 사용빈도수는 문영호 외(1994)에 따르면 100:1의 비율로 ‘있다’가 ‘계시다’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허웅(1982₁, 1982₂)에서는 음운적인 복잡성 차이가 이 두 동사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의미위계상의 의미층위 문제는 그동안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특별히 분류체계에 있어서 각 명명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와 또한 이것이 의미층위에 대해 가지는 관련성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동안 이른바 의미장 이론(semantic field theory)에서는 Berlin & Kay (1969), Lehrer(1974), Brown(1976), Wierzbicka(1980, 1988, 1989), Brown & Witkowski(1983), Talmy(1985) 등의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장이 다시 의미위계층위와 어떠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명사의 분류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생물학적 분류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이용해 보면, ‘계’나 ‘류’, ‘종’ 등이 이들보다 낮은 위계보다는 기본층위로 생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는 기본층위라는 개념이 생물학적 분류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어학적 분류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 분류체계의 확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층위 분류에서도 문법화와의 정확한 상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의미적 일반성의 문제도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문법화와의 상관성에서 볼 때, 만일 의미적 일반성이 문법화를 보장하여 준다면, 인간의 인식에 있어서 세상을 파악할 때 이른바 모든 상황(event)은 동작(motion)과 상태(state)로 대별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 주된 상황이 어휘화되어 있는 ‘움직이다’와 ‘있다’의 두 어휘는 반드시 문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언어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움직이다’는 ‘있다’보다 문법화가 덜 되는 것 같다. 이것은 ‘있다’라는 ‘stasis’의 개념이 인간의 인식상에서 ‘움직이다’와 인식적 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다’, ‘가다’, ‘오르다’, ‘내리다’ 등과 같은 직시동사류(deictic motion verbs)와 인식적인 대치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

에 있어서 이동의 방향이 매우 기본적인 요소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문법화의 예들을 통해 살펴보면, 이런 직시동사류 중에서도 ‘오르다’, ‘내리다’보다는 ‘오다’, ‘가다’가 더 기본적인 것으로 보이며, ‘오다’, ‘가다’의 수평이동동사 중에서도 ‘오다’보다는 ‘가다’가 더 기본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미층위의 문제는 결국 인간이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 즉 인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문법화가 일어나는 개연성이 가장 높은 기본층위란 결국 인간의 인식상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3.2 범주화와 문화적 영향의 문제

의미층위가 생물학적인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고 파악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세상의 경험이 실제로 문화에 의해 범주화되고 이러한 범주화가 다시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언어상대성 이론이 대두된 이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Sapir(1949)는 미국원주민 언어인 Paiute어에서 자연지형에 대한 명명법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영어의 예와 비교하면서, 이것은 결국 Paiute족과 유럽계 미국인들이 지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Whorf(1956)에서도, 미국원주민 Hopi어를 통해 문화적인 차이가 어떻게 문법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어의 보문소 *that*가 Hopi어에서는 그 종속절의 명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구별되어 쓰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었다.

최근의 언어학적 전통에서도 특히 Lakoff(1987)에서 범주화가 얼마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호주원주민 언어인 Dyirbal어에 나타나는 *balan*이라는 범주가 ‘여성’, ‘불’, ‘위험한 물건’을 포함하는 범주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객관주의가

아닌 경험주의만이 인간의 언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분류법상의 문화적 차이는 Arizona에 거주하는 미국 원주민 Papago어의 분류법을 연구한 Mathiot(1962), 필리핀의 원주민 Subanun어에 나타나는 186가지의 인간의 질병 어휘의 분류법을 연구한 Frake(1961) 등 많은 문화인류언어학자들에 의해 많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문화적인 차이가 문법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일본어의 존재동사에서 ‘사물’과 ‘사람’을 대별하여 어휘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어에서 남성이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 *boku*와 페르시아어의 1인칭 단수 대명사 *banda* (Kuryłowicz, 1964; Traugott 1982), 인도네시아어의 1인칭 대명사 *saya*는 모두 어원적으로 ‘노예’에서 발달한 것이다. 또한 일본어의 2인칭 대명사 *kimi*나 인도네시아어의 존칭대명사 *tuan*도 어원적으로 ‘주인’에서 문법화된 것이다. 이러한 문법화 현상은 해당 언어권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특징이 공유되지 않는 언어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다양한 범주화 또는 분류체계 속에서 인간 경험상의 공통적인 점과 문화에 의한 언어특정적인 점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따라 문법화의 범언어적 특성과 언어특정적인 특성을 확인해 내는 일들이 큰 과제로 남는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문법화 현상이 어휘의 의미상 구체성과 어떠한 상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범언어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개 의미적 구체성이 높은 어휘는 그보다 구체성이 낮은 어휘보다 문법화하는 개연성이 낮는데 그것은 이러한 구체성이 그 어휘의 사용빈도를 낮게 하고 낮은 빈도수를 가진 단어는 그만큼 문법화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여기에서 살펴

본 영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태국어, 일본어 등의 예에서 비교적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미층위상의 상의어, 하의어의 구분에 관한 문제와, 언어와 문화간의 상호관련성에 의한 언어특정적 문법화 현상이 많이 있어서 이 점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의 문법화 연구에서 더 많이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남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조교수>

□ 참고 문헌

- 김차균(1990), 관계절의 시제와 상위문 속에서의 연산, 『한글』 207, 김차균 1993[1990] 『우리말 시제와 상의 연구』 태학사, 재수록, 293~370.
- 문영호, 권종성, 이정용, 최병수, 박애순, 김길연, 서춘희, 리근용, 주향숙 (1994), 『조선어빈도수 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서울: 한국문화사 영인.
- 이성하(1999), [Rhee, Seongha] Semantic generality and grammaticalization in Korean. A paper presented at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nguages of Far East, South-East Asia and West Africa.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Sep. 8-10, 1999. St. Petersburg, Russia.
- 이성하(1996), [Rhee, Seongha] Semantics of Verbs and Grammaticalization: The development in Korean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h.D. dissertation. Seoul: Hankuk Publisher.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제선(2000), 태국어 동사의 전치사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태영(1993[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허웅(1982ㄱ), 19세기 국어 때때김법 연구, 『한글』 177. 허웅(1987),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재수록. 161~196.
- 허웅(1982ㄴ), 한국말 때때김법의 걸어온 발자취, 『한글』 178. 허웅(1987),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재수록. 197~245.
- Berlin, Brent & Paul Kay 1969,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rown, Cecil H. 1976. General principles of human anatomical partonomy and speculations on the growth of partonomic nomenclature. *American Anthropologist* 3: 400~424.
- Brown, Cecil H. & Stanley R. Witkowski. 1983, Polysemy, lexical change, and cultural importance. *Man* 18: 72~89.
- Bybee, Joan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John Benjamins. 이성하·구현정 역. 서울: 한국문화사.
- Bybee, Joan L., Revere Perkins, and William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ake, Charles. 1961, The diagnosis of disease among the Subanun of Mindinao. *American Anthropologist* 63: 113~132.
- Genetti, Carol. 1986, The grammaticalization of the Newari verb *tol*. *Linguistics of Tibeto-Burman Area* 9.2. 53~70.
- Heine, Bernd, Ulrike Claudi, and Friederike Hünemeyer.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pper, Paul, and Elizabeth Closs Traugott.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mmer, Suzanne. 1993, *Middle Voice*. Amsterdam: John Benjamins.
- Kuryłowicz, Jerzy. 1964, *The Inflectional Categories of Indo-European*. Heidelberg: Winter.
- Lakoff, George.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hmann, Christian. 1982, *Thoughts on Grammaticalization: A*

- Programmatic Sketch*. Köln: Universität zu Köln.
- Lehrer, Adrienne. 1974. *Semantic Fields and Lexical Structure*. Amsterdam: North-Holland.
- Mathiot, Madeleine. 1962. Noun classes and folk taxonomy in Papago. *American Anthropologist* 64: 340~350.
- Meillet, Antoine. 1912. L'évolution des formes grammaticales. *Scientia* 12.26.6: 130-48.
- Ono, Tsuyoshi. 1992. The grammaticalization of the Japanese verbs *oku* and *shimau*. *Cognitive Linguistics*. 3.4: 367~390.
- Ono, Tsuyoshi & Ryoko Suzuki. 1992. The development of a marker of speaker's attitude: The pragmatic use of the Japanese grammaticalized verb *shimau* in conversation. *BLS* 18: 204~213.
- Rosch, Eleanor H. 1973.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4: 328-350.
- Rosch, Eleanor H. 1978.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In Rosch & Lloyd (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NJ: Erlbaum.
- Sapir, Edward. 1949. Language and environment. In D. Mandelbaum (ed.) *Selected Writings of Edward Sapi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weetser, Eve. 1988. Grammaticalization and semantic bleaching. *BLS* 14: 389-405.
- Talmy, Leonard. 1985.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Elizabeth Closs. 1982. From propositional to textual and expressive meanings: Some semantic-pragmatic aspects of grammaticalization. In Lehmann & Malkiel (eds.) *Perspectives in Historical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245~71.
- Van Oosten, Jeanne. 1986. Sitting, standing, and lying in Dutch: A cognitive approach to the distribution of the verbs *zitten*, *staan*, and *liggen*. In J. Van Oosten & J. P. Snapper (eds.) *Dutch Linguistics at Berkeley*. 137-160.
- Whorf, Benjamin. 1956. A linguistic consideration of thinking in primitive communities. In J. B. Carroll (ed.) *Language, Thought*

- and Reality*. Cambridge: MIT Press.
- Wierzbicka, Anna. 1980. *Lingua Mentalis: The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New York: Academic Press.
- Wierzbicka, Anna. 1988. *The Semantics of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 Wierzbicka, Anna. 1989. *The Alphabet of Human Thoughts*. Linguistic Agency, Univ. of Duisberg, er. A, vol. 245. Duisburg: Universität Duisburg Gesamthochschule.
- Zipf. George Kingsley. 1935. *The Psycho-Biology of Language*. Cambridge: Houghton Mifflin.